

【서 평】

*Ten Problems of Consciousness:
A Representational Theory of the Phenomenal World*

Michael Ty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5

민 찬 홍*

1. 의식과 지향성

인지과학과 심리철학에서 <의식의 문제>가 90년대에 이르러 다시 주목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신의 문제를 <심적 내용(mental content) 내지 지향성(intentionality)의 문제>와 <감각질(qualia) 또는 의식의 문제>로 구별해서 말하는 관례는 이제 30년 가까운 전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30년의 대부분 동안, 특히 기능주의(functionalism) 및 연산주의(computationalism)의 도래 이후, 심리철학자들은 지향성의 문제에 매달려 왔다. 정신의 지향적 내용을 규명하는 문제는 그간의 언어 철학의 성과를 빌어 어찌어찌 해결될 가닥이 잡힐 듯 보였던 것 같다. 어찌면 이제 금방이라도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의미론”이 출현할 것처럼 들썩거렸다.

그러나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 문제도 보기보다 그리 만만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곧 드러났다. 지향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연구와 논의들 속에 온갖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입장들이 다시 들어앉아 살림을 차리는 데에는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형이상학의 온갖 입장들이 한 집안에서 아웅다웅하는 한 이 동네가 조용해지기는 힘들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지향성을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시도

* 한남대 철학과 교수

들은 갈수록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다. 인과이론, 정보이론, 목적론, 도구주의, 제거론 등등 지향성을 자연화하려는 프로그램들은, 문을 닫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명맥이나 유지할 정도의 연구 결과를 내놓는 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 동안 의식의 문제는 몇몇 심리철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주변적인 문제거리로 치부되었는데, 아마도 문제 자체가 대답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인지과학 전반을 소개하는 두툽한 교과서들의 철학 부분은 주로 심신 이론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그치거나, 기껏해야 지향성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소개할 뿐, 의식의 문제에 관한 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최근 의식의 문제가 부각된 배경이 그간의 두뇌-신경학의 연구 성과가 의식의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볼만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향성 문제에 대한 전망이 점차로 어두워져 갔기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의식의 문제는, 수천 년, 아니면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유물론자들의 심복지환이었던 이 골치 아픈 문제는, 2, 30년의 짧은 실각 이후에 정신에 관한 최고의 문제로 다시 복권한 듯하다.

2. 의식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최근 의식에 관한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라면 아마도 데이빗 찰머스(David Chalmers)의 <The Conscious Mind>를 꼽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찰머스는 감각질적 의식이 얼마나 끈덕진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의식에 대한 그간의 설명들이 의식의 기능적 측면(functional consciousness)에 주목하였을 뿐, 의식의 현상적 측면(phenomenal consciousness)를 포착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을 지적하고서, 현상적 의식을 설명하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the hard problem)”이라고 명명하여 유

포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이론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반을 논리적(개념적)인 의존 관계와 자연적인 의존 관계로 구별하고서는, 정신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에 논리적으로는 수반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는 수반한다고 논증하고, 그로부터 물리주의는 논리적인 정신물질 수반을 요구하므로 틀렸다고 결론짓는 그의 논변은 동의해주기 어려운 구석들이 많은 듯하다.

찰머스가 물리주의를 거부하고 이원론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간단히 대세를 거스르는 반동적 몸짓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물리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아니다. 신과학 운동이 인구에 회자된다고 해서 전통적인(=근세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권좌를 물러난 게 아니듯이 말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비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이 “환원주의적이고 기계론적”라는 신과학 측의 지적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과학은 “물리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신과학은 (‘신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일치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전통적 과학의 대안이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정도일 뿐 전통적 과학의 대안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무릇 어떤 사태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하여 그것을 과학의 세계관에 정합적으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 사태를 물리주의적인 것으로 설명한다는 뜻이다.

마이클 타이의 <의식의 열 가지 문제>는 프레드 드레츠키(Fred Dretske)의 <Naturalizing the Mind (The MIT Press, 1995)>와 함께 의식에 대한 물리주의 정신에 충실한 최근의 연구들이다. 이들 두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정보처리 체계로서의 정신의 한 부분일 수 있는지 보이려고 함으로써 정보-이론적(information-theoretical) 인지 이론의 전개라는 틀 속에서 의식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건전한 물리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디디고 있다.

3. 타이의 표상론적 의식 이론

타이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의식에 관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열 가지로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들이란 물리주의에 도전하는 문제들, 즉 물리주의가 옳은 입장이라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젯거리들을 뜻한다. 그의 정리에 따르자면 의식의 열 가지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심리철학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구사되던 감각질 결여(absent qualia) 논변 및 감각질 전도(inverted qualia) 논변 등, 감각질과 관련된 문제들과 둘째는, 의식 현상의 주관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의식이란 언제나 누구의 의식이며, 그 소유자에게 사적이고 주관적이며, 또한 특정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것은 토머스 네이글(Thoma Nagel)이 “박쥐임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물리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는, 심적 인과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심적 현상 내지 속성이 실재하는 것인 한 그것들이 인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과 상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타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쉬운 대답들, 예컨대 문제들 배후에 깔려 있는 가정들을 물고 늘어지거나 문제를 정식화하는 데에서 사용된 개념들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대답하려는 시도들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이것들이 깊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자신의 카드를 다 펼쳐 보이기 전에 먼저 소유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소유의 문제란 예컨대 통증과 같은 의식 현상들은, 화산 폭발과 같은 물리적 현상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누구의 통증”이라는 식으로 의식을 가진 주체에 귀속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타이의 해결은 간단한데, 심적 속성, 현상들이란 언제나 <사건>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요컨대 ‘통증’은 ‘돌맹이’보다는 ‘달리

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달리기가 언제나 누군가의 달리기로만 존립할 수 있으면서도 물리주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적 사건들은 언제나 누군가가 겪는 사건으로만 존립하지만 그것이 물리주의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타이는 의식적인 경험들과 느낌들, 통증 등의 신체 감각과 감정들이 일종의 지향적 상태들이라는 좀 놀라운 주장을 편다. 원래 통증이나 가려움, 우울함, 쾌감과 같은 의식 현상들은 믿음, 욕구, 사고, 희망 등의 명제태도들과 달리 지향성을 갖지 않는 심적 현상들로 보는 것이 심리철학의 교과서적인 견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타이의 독창적이고도 파격적인 주장인 셈이다. 타이에 따르면 의식적 경험들은 외부 세계의 또는 모종의 내적인 신체적인 변화의 감각적 표상들이다. 기분, 감정, 신체 감각들은 우리의 내적인 물리적 작동을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은 것이며, 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한 지침이요, 우리의 피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피컬한 표상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상징적인(symbolic) 표상들을 다루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일찍이 코슬린(Kosslyn, S.)이 주장하였듯이 상징적 표상을 처리하는 장치와 독립적인, 아날로그 표상 내지 이미지 표상을 처리하는 장치가 있을 수 있다. 표상을 표상이게 하는 것은 표상하는 것과 표상되는 것 사이에 성립하는(인과적인) 법칙적 공변(lawful covaration)이지, 상징적인 내지 언어적인 분절적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체 감각들과 감정, 기분, 등의 의식 현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상태들에 대한 가장 충실한 지표이자(그리 이스적인 의미에서) 자연적 표상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명제적(subdoxastic) 표상들은 아마도 감각 양태들에 따라서 독립적인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체 감각의 경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수용기(receptors)들에 들어 있는 정보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한다. 이 수용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극들에 대해 반응하는데, 신체 상의 특정한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표상들은 그 위치 정보(예컨대 머리, 팔, 배 등)와 함께 연산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더 일반적인 표상으로 된다.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따라서 마치 오감과 연결된 지각적 감각들 각각에 대해서 그렇듯이, 신체 감각들을 처리하는 특화된 감각 모듈이 있는 것이며, 이 모듈이 산출하는 표상들이 바로 우리가 신체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런 표상들은 비개념적인 것들로서 개념적이고 명제적인 인지 과정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감정이란 신체적 변화의 복합적인 감각적 표상들로서, 특정한 인지적 반응들과 행동들을 유발하는 표상들이다. 기분(moods)은 감정과 비슷한 것이되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기보다는 어떤 스타일의 반응과 행동을 유발하는 표상들이다.

4. 감상적 비평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꽤 납득할만하다는 점에서 일단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론이 어떻게 현상적 의식을 설명한 것인가? 타이는 이에 대해서 의식의 현상적 성격이 일종의 지향적 내용 (물론 비개념적인 지향적 내용)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현상적 성격을 지향적 내용과 동일시함으로써 “무엇과 같은가(what it is like)”라는 것이 내포적 맥락을 이룬다는 사실, 모든 의식 경험이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는 사실, 느껴진 차이들이 언제나 지향적 대상의 차이와 대응한다는 사실 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본다.

의식에 대한 타이의 표상적 이론은 유물론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신을 정보 처리 체계로 보는 정보이론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제 유물론 내지 물리주의는 끝난 것이 아니냐는 식의 회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온 평자로서는, 더욱이 정보이론적 관점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현대의 컴퓨터 기술에 너무 매혹된, 진리 이기에는 너무 단순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비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생

각이 없는 평자로서는, 타이의 이론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떠나서 그가 취하고 있는 노선만으로도 그의 저서가 최근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혀야 한다고 믿는다.

게다가 현상적 의식에 대한 타이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수긍할만하다. 타이의 이론은 <기능적 의식>이 아닌 <현상적 의식>이라는 문제의 핵심에, 즉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작 진짜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기피했다고 말해지는 종전의 기능주의적인 의식 이론에서 한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타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 현상적 내용을 감각적 표상의 선개념적 지향적 내용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동일시가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지향적 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논란의 와중에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답은 하나의 완결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완결된 이론을 세우기 위한 다소 엉성 한 하나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더구나 어찌면 타이의 설명에 대해서 다시 일종의 감각질 전도 논변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바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표상의 지향적 내용이 하필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어떤 신체 감각적 표상, ‘가려움’이 그러그러한 신체적 변화와 법칙적으로 공변하는 표상, 신체 감각 모듈이 산출하는 표상이요, 다른 인지 과정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다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게 왜 하필 나에게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고 가렵다고 느껴지는가?”하고 다시 물을 수 있다면, 타이는 현상적 의식의 진짜 문제에 아직 대답하지 못한 셈이 되고, 저 집요한 의식의 문제는 다시 물리주의자에게 철벽으로 다가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혹시 문체에 예민한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하고 글을 맺겠다. 이 책에서 타이의 글은 무슨 외국인이 쓴 문장처럼 곱끄러운 데가 있다. 일독을 결심한 독자라면 이런 점을 이유로 책을 덮지 말고 인쇄심을 발휘하시길 바란다. 참고 읽다보면 곱끄러움다는 “현상적”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도 모아 놓았구나 하는 감탄이 나올 수도 있다.